

기획논문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송국리문화단계 공음공식과 정치경제 사람-사물의 가분성과 침투성에 주목하여

우정연

한국학중앙연구원 글로벌한국학부 교수, 고고학 전공

myjywoo@aks.ac.kr

국문초록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집약적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송국리문화 핵심권에서는 기존의 가구 중심적 식량 생산-저장-소비에서 공동체 중심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공음공식 관행이 지닌 정치경제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송국리문화 핵심권에 비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무덤 주위에서 발견되는 파쇄/훼손/훼손된 유물을 매장지례의 일부로 이루어진 공음공식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최근 유물뿐만 아니라 인골을 의도적으로 해체하여 그 일부만 매장하거나 재배치한 사례, 또는 다른 개체의 인골과 결합해 매장한 사례 등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계적 존재로서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부분적, 선별적으로 분해되고 재배치될 수 있다는 최근의 고고학적, 인류학적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사람과 사물의 가분성과 침투성을 함께 이해해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공음공식 관행은 단지 산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생명 에너지 순환과 조절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계 중심적이고 순환적인 인간관, 우주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송국리문화 핵심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 구체적인 공음공식 방식과 그에 쓰인 토기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형성된 정치경제적 연결망의 배타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제어 송국리문화, 공음공식, 가분성, 침투성

투고일 2026. 7. 5. 심사일 2026. 8. 6. 게재 확정일 2026. 8. 27.

Special Issue

Commensality and Political Economy during the Songgukri Period in South Korea: Focusing on Dividuality and Permeability of People and Things

Woo, Jungyoun

Professor, Division of Global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yjywoo@aks.ac.kr

Abstract

In the Songgukri culture, characterized by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the shift is notable from previous household-centered food production, storage, and consumption to community-centered one in and around the Songgukri site. In this central area of the Songgukri culture, the politic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commensality in daily contexts were the focus of attention in existing studies. By comparison, fragmented artefacts in mortuary contexts were discussed as evidence of commensality outside of the central area. Recently, in addition to the deposition of fragmented artefacts, deliberate relocation of human body parts is increasingly reported.

This study understands the deposition of fragmented artefacts and the relocation of body parts in terms of their dividuality and permeability as relational beings. I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commensality in these communities was part of the attempt to regulate the circulation of life forces among the living, the dead, and the supernatural. While this relational personhood is widely observed within and beyond the central area of the Songgukri culture, the specific ways in which commensality was practiced differ between the central area and other areas. This difference is explained as part of their strategy to form and maintain the exclusive politico-economic networks centered in the Songgukri site.

Keywords: Songgukri culture, commensality, dividuality, permeability

Received July 5, 2026 Reviewed August 6, 2026 Accepted August 27, 2026

I. 머리말

산업화를 통한 공장제 대량생산이 보편화되지 않은 여러 사회에서 음식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체화된 물질문화”로서 생산과 교환 관계를 체현하고, 개개인의 몸과 공동체 그리고 세계를 연결한다.¹ 이러한 사회에서는 음식의 소비와 흡수가 몸의 외양을 통해 공적으로 관리되기도 한다.² 예를 들어, 파푸아 뉴기니 에토로족은 ‘너무 뚱뚱한’ 아기의 몸을 흑마술의 증거 또는 생명 에너지를 남몰래 저장한 증거로 믿어 것처럼 뚱뚱한 아기를 죽인다.³ 한편 피지에서 개개 구성원의 몸을 공동체의 안녕을 나타내는 집단적 지표로 여겨 몸무게 감소의 징후가 있는지 서로의 몸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⁴ 이들에게 개개 구성원은 태어나고 죽지만 음식 등을 통해 전달되는 생명 에너지는 그러한 구성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하여 공동체와 세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⁵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집약적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송국리문화단계에서는 부여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물질문화의 여러 측면에 걸쳐 다층적인 차이가 나타난다.⁶ 특히 송국리문화 핵심권에서는 기존의 주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5-C08).

- 1 M. Dietler, “Theorizing the Feast,” in M. Dietler & B. Hayden(eds.), *Feasts: Archaeological and Ethnographic Perspectives on Food, Politics and Power*(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2001), pp. 72~73; K. C. Twiss, *The Archaeology of Foo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2 A. Becker, *Body, Self and Society: The View from Fiji*(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크리스 파울러(지), 우정연(역), 『고고학과 인류학을 통해 본 사람다움』(서울: 서경문화사, 2018), 134쪽.
- 3 M. Strathern, *Property, Substance and Effect*(London: Athlone, 1999), pp. 45, 48~51.
- 4 크리스 파울러, 앞의 책(2018), 134쪽.
- 5 G. H. Herdt, “Semen Transactions in Sambia Culture,” in G. H. Herdt(ed.), *Ritualized Homosexuality in Melanesi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 203.
- 6 김승욱,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45(2001); 김장석,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2008); 배진성, 「플라스크형 적색마연호의 분포와 성격」, 『한국청동기학보』 18(2016); 이정은, 「적색마연토기의 생산과 교환: 남강유역과 금강유역의 비교 연구 시론」, 『영남고고학』 95(2023).

거지 안 노지 및 수혈유구를 대신한 주거지 밖 노지 및 수혈유구의 뚜렷한 증가를 통해 나타나듯 기존의 가구 중심적 식량 생산-저장-소비에서 공동체 중심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⁷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공음공식(共飲共食, commensality) 관행이 지닌 정치경제⁸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송국리문화 핵심권에 비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무덤 주위에서 발견된 파쇄/훼손/훼손된 유물을 공음공식 후 이루어진 의례적 행위의 산물로 주목하였다.⁹ 그런데 최근 유물뿐만 아니라 인골을 의도적으로 해체하여 그 일부만 매장하거나 재배치한 사례, 또는 다른 개체의 인골과 결합해 매장한 사례 등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¹⁰

이에 본고에서는 송국리문화단계에서 널리 관찰되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분해 행위를 송국리문화 핵심권과 그 주변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해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고학에 비해 공음공식 및 사람과 사물에 대한 분해 행위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구미 고고학과 인류학의 성과를 참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송국리문화단계 공음공식 관행은 단지 산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생명 에너지 순환과 조절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계 중심적이고 순환적인 인간관, 우주관을 공유하면서도 송국리문화 핵심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 구체적인 공음공식 방식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형성된 정치경제적 연결망의 배타성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

7 유병록, 「송국리형주거지 노의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22(2018).

8 개개인의 생물체적 생존을 넘어 집단적인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생산-분배-소비 활동 및 이에 수반되는 권력 관계를 지칭한다. A. W. Johnson & T. Earle,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23~30.

9 강민석, 「묘역지석묘의 유물 훼손과 장송의례」, 『한국고고학보』 126(2023); 이성주, 「저장제사와 성찬제사: 목곽묘의 토기부장을 통해 본 음식물 봉헌과 그 의미」, 『영남고고학』 70(2014); 이영문,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서울: 학연문화사, 2002).

10 우정연,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인골과 무덤을 통해 본 젠더와 삶의 재생산」, 『한국상고사학보』 125(2024).

II. 무덤과 공음공식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매장 의례의 일부로서 지석묘 주변에서 편으로 발견되는 유물, 특히 무문토기편은 일찍부터 공음공식의 흔적으로 이해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영문¹¹⁾은 지석묘 주변에서 발견되는 파손된 유물을 장송의례 이후 또는 그 일부로 이루어진 향연이나 제의와 같은 의식의 결과물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최근 강민석¹²⁾도 지석묘 묘역 출토 무문토기편을 공음공식 의례의 산물로 보았다.

이보다 앞서 이상길¹³⁾은 직접적으로 ‘향연’이나 ‘공음공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파쇄 후 투기된 유물에 대해 무덤(〈그림1〉)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밭 등의 생활유구 및 주변 경관(〈그림2〉)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에 걸쳐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선구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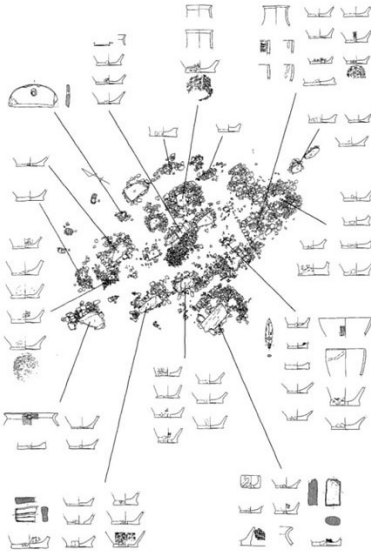


그림1-무덤 내의 유물 파쇄와 투기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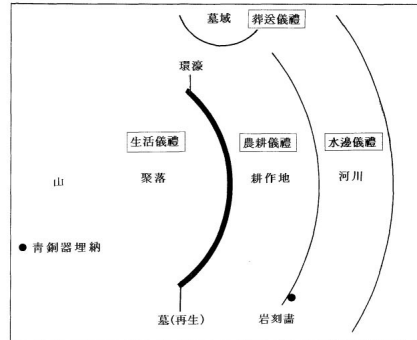


그림2-무덤과 경관¹⁵⁾

11 이영문, 앞의 책(2002), 201쪽.

12 강민석, 앞의 논문(2023).

13 이상길, 「지석묘의 장송의례」, 『고문화』 45(1994); 이상길,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14 이상길, 위의 논문(2000), 88쪽의 〈도 21〉.

15 이상길, 위의 논문(2000), 199쪽의 〈도 39〉.

이상길¹⁶은 지식묘 조성과정에서 행해진 의례를 ‘정지의례-축조의례-매장의례-제사의례’로 구분한 후, 유물의 파쇄와 투기 행위를 제사의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꼽았다(〈그림1〉). 그는 이러한 행위를 다시 i) 한 개체를 한 장소에서 파쇄하여 그대로 투기, ii) 한 개체를 파쇄한 후 한 묘역 내의 여기저기에 분산 투기, iii) 한 개체를 파쇄한 후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묘역에 따로 투기, iv) 여러 개체를 파쇄하여 특정 부위만 투기한 경우로 세분했다.

특히 이상길¹⁷은 합천 우포리 E-5호, 승주 대치리 A호 석곽, 여천 월내동 8호 내부 매몰토 속에서 수습된 토기편이나 석촉편이, 같은 유구 부석 사이에서 출토된 토기편이나 석촉편과 서로 접합되거나 동일한 개체의 일부임에 주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승주 대치리유적 2호, 5호, A호 석곽에서는 동일 개체의 토기편이 매몰토와 부석에서 따로 수습되었다. 여천 월내동유적에서는 반파된 갈돌편이 서로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묘역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18·22호와 2·9호). 승주 우산리 ‘다’군 유적 5호와 13호 주변에서도 동일 개체로 확인된 단도마연토기편이 보고되었다. 여천 평여동 가-8호에서는 묘광의 보강석 아래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동일 개체의 것이 유구 내부에서도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이상길¹⁸은 무덤 축조 의례시 토기를 깨뜨려 사용하다가 일부는 보강석 아래 묻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나중에 시신 안치 후 행해진 의례에서 따로 묻은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따로 매납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이 없다.

전체적으로,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한 물품을 파쇄한 이유를 이상길¹⁹은 장송의례과정에서 사자의 죽음과 관련해 생긴 부정을 씻기 위해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케 하여 다시 사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파쇄한 물품을 투기할 때 왜 위 i)~iv)와 같이 차별적인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물 파쇄와 투기의 흔적은 무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밭, 야외노지,

16 이상길, 앞의 논문(1994), 108~113쪽.

17 이상길, 앞의 논문(2000), 97~120쪽.

18 이상길, 위의 논문(2000), 120쪽.

19 이상길, 위의 논문(2000), 121쪽.

주거지 내외에서 널리 관찰되는데, 이상길²⁰은 이러한 경우도 대부분 의례에 사용했던 유물을 파쇄하여 투기한 것으로 본다(<그림2>). 청동기시대 농경취락과 그 주변 경관에서 널리 확인되는 이러한 의도적 행위를 이상길²¹은 ① 의외의 장소나 위치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 ② 한 개체분의 유물 중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③ 한 개체의 유물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기 부분적으로 출토되는 경우로 구분한다. 이 중 ①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거나 의례 후 폐기한 것, ③에 대해서는 파손된 동일 개체의 유물이 각기 다른 곳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기능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②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후 이성주²²는 청동기시대 무덤 내외 토기 분포를 통해 매장시설 안에서 발견되는 적색마연호와 관련된 음식물 의례, 무덤 주위의 주구나 제단형의 묘역에서 파편으로 발견되는 무문토기들과 관련된 음식물 의례를 구분하였다. 이성주는 이 중 적색마연호를 음식과 관련된 부장용 토기로 추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꼽는다: (1) 지석묘 단계를 통틀어 유일한 기종의 부장토기이다; (2) 모든 무덤에 다 부장되지는 않는다; (3) 관내, 관외 묘광 내, 관개 상부 등 여러 위치에 매납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에 비해 배진성²³은 무덤에 매납된 적색마연호를 망자의 영혼을 담은 용기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적색마연호 매납 사례가 가장 많은 경남지역에서 적색마연호는 무덤 바닥면의 단벽측과 개석부에서 주로 발견된다(<그림3>). 한편 의례에서의 붉은색은 여러 지역과 시대에 걸쳐 신성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고대의 호(壺)는 신령의 상징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검·흑·흑·흑과는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독립된 공간에 매납된 적색마연호는 단순한 신변 부장품이 아니라 망자의 영혼을 담은 용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단벽측에서도 한쪽 모서리에 놓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무덤 한쪽 모서리가 죽은 자의 영혼이 호를 통해 사후세계로 가는 입구나 통로로

20 이상길, 위의 논문(2000), 200~201쪽.

21 이상길, 위의 논문(2000), 60~64쪽.

22 이성주, 앞의 논문(2014), 112쪽.

23 배진성, 「망자의 호, 영혼의 호」, 『한국고고학보』 116(2020).

여겨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적색마연호를 음식물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본 위 이성주의 경우와 같이, 배진성²⁴도 적색마연호를 망자의 영혼을 담은 용기로 봤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모든 무덤에 적색마연호가 매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림3-적색마연호 출토 위치²⁵

24 배진성, 위의 논문(2020), 83~84쪽.

25 배진성, 위의 논문(2020) 73쪽의 〈그림 1〉 수정.

여기서 이성주²⁶가 강조한 것처럼, 매장 의례에서의 공음공식은 살아 있는 사람 들뿐만 아니라 죽은 이나 초자연적 존재를 위한 것이기도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안데스 향연에서는 죽은 이를 먹이기 위해, 또는 향연에 직접 참석 하지 않은 다른 이들을 위해 그만큼 향연 참석자가 과식을 한다고 한다.²⁷ 우리에게 친숙한 유교문화권에서도, 제사로 대표되는 죽은 조상과의 공음공식 관행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²⁸ 죽은 조상과 끼니를 함께 하면서 후손은 죽은 조상에게 건강, 부, 행운 등을 기원하는데, 중국 상나라 갑골문과 청동용기에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죽은 조상도 후손들이 차려 주는 음식에 크게 신경을 썼다고 한다.²⁹

초자연적 존재와의 공음공식 사례로 잘 알려진 경우가 아즈텍 문화에서의 인신 공양 관습이다. 아즈텍 문화에서는 이들의 주식인 옥수수와 인간의 생장이 은유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옥수수의 생장에는 신의 축복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³⁰ 신이 축복을 내려 옥수수를 자라게 하고 인간을 먹여 살리는 만큼, 인간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인신공양을 한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은유적 순환체계에서 개개 인간의 삶과 죽음은 영속적인 식물 생장주기의 한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³² 유교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제(祭)’는 ‘피가 흐르는 산 짐승이나 고기를 제단에 바친다’라는 뜻을 지닌 갑골문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³³

공음공식 참여자의 범위를 위와 같이 죽은 이 또는 초자연적 존재로까지 확장 하면, 무덤에 매납된 적색마연호의 의미에 대해서도 위 이성주와 배진성의 견해

26 이성주, 앞의 논문(2014), 110쪽.

27 C. A. Hastorf, *Steamed or Boiled: Identity and Value in Food Preparation*, in Pollock, S. (ed.), *Between Feasts and Daily Meals: Towards an Archaeology of Commensal Spaces* (Berlin: Topoi, 2015); K. C. Twiss, *op. cit.* (2019), p. 160에서 인용.

28 S. M. Nelson, *Feasting the Ancestors in Early China*, in T. Bray(ed.), *The Archaeology and Politics of Food and Feasting in Early States and Empire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2003), pp. 65~89.

29 K. C. Twiss, *op. cit.* (2019), p. 161.

30 D. Carrasco, "Cosmic Jaw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63(1995), pp. 429~463.

31 K. C. Twiss, *op. cit.* (2019), p. 163.

32 *Ibid.*, p. 165.

33 이영문·윤호필(편), 『총설』, 『분묘와 의례』(서울: 서경문화사, 2017), 12~13쪽.

를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함께 종합해 볼 수 있다. 즉, 공음공식이 생자의 물리적 생존 목적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 전통사회에서 무덤에 매납된 적색마연호는 생자와 사자,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공음공식 행위를 매개한 물질 매체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영국 요크셔 가튼 슬랙유적의 청동기시대 봉분묘(barrow) 출토 자료가 주목된다.³⁴ 이 무덤 매장주체부에서 발견된 젊은 남성의 인골 중 하악골은 가슴 위로 옮겨져 있었고, 대신 미니어처 음식 그릇(Food Vessel)이 하악골 자리에 놓여 있었다. 브뤽³⁵은 이를 공음공식 관행에서 인간의 입과 토기의 입이 공통적으로 수행한 ‘채널’ 역할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한다.

더 나아가,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에서는 유물뿐만 아니라 인골도 의도적으로 해체되고 재배치된다(〈표1〉).³⁶ 위에서 살펴본 영국 청동기시대 봉분묘의 ‘토기-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주 옥방4지구 5호 석관묘에서는 인골의 상체는 양호하게 남아 있는데, 그에 반해 하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그림4〉). 대신 하반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적색마연토기, 석검, 석촉이 장벽면에 붙여 놓여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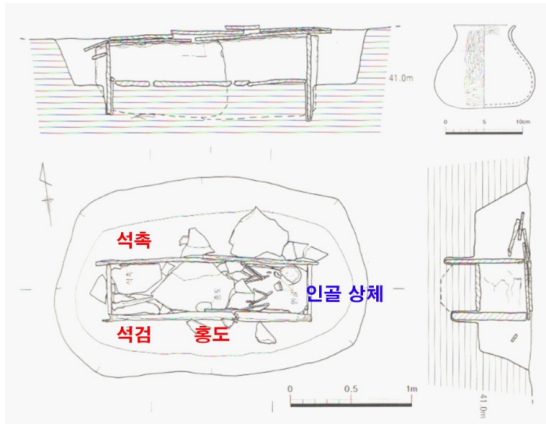


그림4-사람과 사물의 복합/조립 (2): 진주 옥방4지구 5호 석관묘³⁷

34 J. R. Mortimer, *Forty Years' Researches in British and Saxon Burial Mounds of East Yorkshire*(London: A. Brown and Sons, 1905), p. 229; J. Brück, *Personifying Prehistor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 69에서 인용.

35 *Ibid.*, p. 69.

36 우정연, 앞의 논문(2024).

37 우정연, 위의 논문(2024), 51쪽.

표1-개별적 몸의 해체 또는 결합 방식과 사례³⁸

장법	유구	묘제	피장자 연령대/성별
화장	안성 만정리 3호	석관묘	성년 여성
	평택 토진리 1호	석관묘	남성
	춘천 중도 I호	지석묘	소아
	나주 랑동 1호	지석묘	숙년 남성
	장흥 갈두II 48호	지석묘	숙년 남성
	경주 천군동 I-5호 주거지	(주거지)	성년 + 노년 남성
	포항 호동 29호 주거지	(주거지)	성년 남성 + 성년 남성
부위 이동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가-17호	석관묘	여성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4호	석관묘	노년 남성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5호	석관묘	숙년
	진주 가호동 1호	석관묘	
	창녕 사창리 10호	석관묘	성년
	달성 평촌리 21호	석관묘	숙년
	대구 매호동 I-1호	석관묘	
	김해 내동 3호	지석묘	숙년
	마산 진동 묘역지석묘 K호	지석묘	
날개 치아	영월 연당 동굴무덤	동굴묘	성인 2인 + 소아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10호	석관묘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16호	석관묘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가-19호	석관묘	미성년
	달성 평촌리유적 1호	석관묘	약년
	달성 평촌리유적 7호	석관묘	약년
	달성 평촌리유적 19호	석관묘	
	창녕 사창리 12호	석관묘	성년
	진주 가호동 7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9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15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17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18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20호	석관묘	
	진주 가호동 25호	석관묘	
개체 결합	보은 부수리 1호	석관묘	성인 + 소아
	달성 평촌리 14호	석관묘	
	달성 평촌리 26호	석관묘	
	사천 본촌리 가2호	석관묘	성년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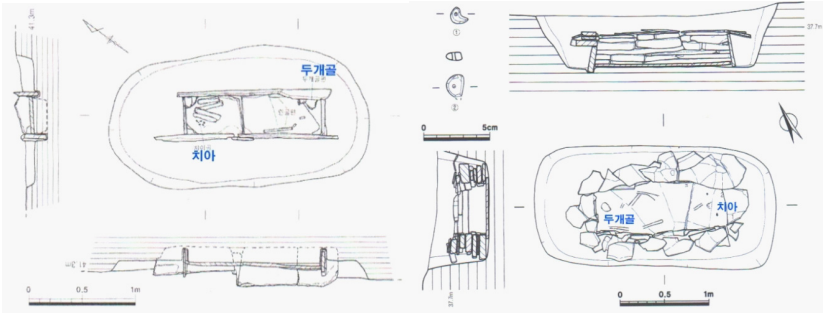


그림5-인골의 재배치(좌: 진주 옥방4지구 4호 석관묘, 우: 달성 평촌리유적 21호 석관묘)³⁹

었다. 이러한 사람-사물 복합체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진주 옥방4지구 4호 석관묘와 달성 평촌리유적 21호 석관묘에서는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인골의 일부가 선별적으로 재배치되었다(그림5). 즉 두 무덤 모두에서 치아가 낱개로 두개골의 반대쪽 단벽에서 검출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산 자와 죽은 자, 또 초자연적 존재와의 공음공식 관행에서 사람과 사물은 원자화된 불-가분적인(in-dividual) 존재가 아니라 부분으로 나뉘어 그 물리적 경계를 넘어 서로 침투, 결합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볼 수 있다. 이때 무덤에 매납되거나 투기된 물건은 무덤과 사자의 몸을 통해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생명 에너지를 주고받는 통로 또는 채널 역할을 하였을 수 있다.⁴⁰ 그렇다면 개별 무덤에서부터 경관을 가로질러 유물을 의도적으로 파쇄하고 전체 또는 일부를 선별적으로 투기한 행위⁴¹, 음식 의례 용기⁴²로서든 망자의 호⁴³로서든 적색 마연호가 정형적인 패턴 없이 선별적으로 매납된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유물의 파쇄와 전체 또는 부분 투기, 적색마연호 매납 여부와 위치가 피장자 개인의 생전 정체성이나 역할 자체에 의해 전적으로 정해지기보다는

38 우정연, 위의 논문(2024), 52쪽의 <표 1> 수정보완.

39 우정연, 위의 논문(2024), 50쪽.

40 크리스 파울러, 앞의 책(2018), 151~152쪽.

41 이상길, 앞의 논문(2000).

42 이성주, 앞의 논문(2014).

43 배진성, 앞의 논문(2020).

피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공동체 내외에 야기된 사회적, 형이상학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이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⁴⁴

III. 송국리문화 핵심권에서의 공음공식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무덤과 공음공식에 대해서는 지석묘 묘역에서 발견되는 무문토기편과 매장시설 안에서 발견되는 적색마연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데, 바로 송국리문화 핵심권인 부여 송국리유적과 그 주변에서는 적색마연토기가 무덤에서 발견되지 않고 주거지나 수혈유구 등의 생활유구에서 출토된다는 점이다.⁴⁵ 또 송국리유적 주변에 밀집해 있는 송국리형무덤 안에서는 적색마연토기가 아니라 무문토기가 복원되지 않는 편으로 발견된다.⁴⁶

금강중류 송국리유적과 그 주변 송국리형무덤의 주요 매납품으로는 석검, 석촉, 무문토기라는 매우 한정된 종류의 유물이 사용되는데, 이들이 매납된 무덤도 전체 무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표2〉). 석검이나 석촉이 파쇄되어 그 일부만 매납된 무덤은 7기에 불과하고, 그에 비해 무덤 출토 무문토기는 1기의 무덤을 제외하고는 모두 편으로 매납되어 완형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송국리유적 54지구 주거군 주변에 축조된 10호 토광묘가 그 예외적 1기인데, 이는 송국리문화 핵심권의 송국리형무덤, 특히 주거군과 분리된 별도의 묘역에 조성된 송국리형무덤에는 무문토기를 의도적으로 파쇄하여 그 일부만 매납하는 관행이 엄격하게 유지되었음을 나타낸다.⁴⁷

44 C. Fowler, "Fractal Bodies in the Past and Present," in D. Borić & J. Robb(eds.), *Past Bodies: Body-Centred Research in Archaeology*(Oxford: Oxbow Books, 2008), pp. 51-52.

45 배진성, 앞의 논문(2016); 이정은, 「청동기시대 중기 적색마연토기 연구: 충청·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14(2020); 이정은·황재훈, 「충청·전북지역 적색마연토기의 제작기술적 특징과 성격」, 『호서고고학』 46(2020).

46 우정연, 「금강중류 송국리형무덤의 상징구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호서고고학』 25(2011b).

47 우정연, 「금강중류 송국리형무덤의 거시적 전통과 미시적 전통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79(2011a), 39-66쪽; 우정연,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저장전락 비

표2-금강중류 송국리형무덤 출토 유물⁴⁸

출토품	무덤 수	
	전체(%)	비-완형 유물 출토 무덤
없음	100기(58.8)	-
석검	11기(6.5)	비-완형 석검 출토 무덤 1기
석촉	7기(4.1)	비-완형 석촉 출토 무덤 2기
무문토기	25기(14.7)	비-완형 무문토기 출토 무덤 25기
석검+석촉	9기(5.3)	비-완형 석검 출토 무덤 1기, 비-완형 석촉 출토 무덤 2기
석검+무문토기	7기(4.1)	비-완형 무문토기 출토 무덤 7기
동검+동착+석검+석촉+옥	1기(0.6)	
석검+석촉+옥	1기(0.6)	
석촉+석착	1기(0.6)	비-완형 석촉 출토 무덤 1기
무문토기+옥	2기(1.2)	비-완형 무문토기 출토 무덤 1기
옥	3기(1.8)	
석재	2기(1.2)	
보습	1기(0.6)	
합계	170기(100.0)	

송국리문화 핵심권의 매장관행에서 엄격하게 지켜진 석검/석촉과 무문토기 사이의 위와 같은 차이에 대해 필자⁴⁹는 공동체와 가구, 무력과 생명력 사이의 모순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남한 지역에서 서로 간에 일정한 양식을 공유하는 석검이나 석촉, 특히 유병식석검과 세장유경식석촉을 한 집단이 제작 또는 입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집단들과의 교류가 필요하고, 이에 는 자원, 기술, 정보, 사람의 교환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무덤에 매납된 석검이나 석촉은 그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물질적 구현물

교연구: 물리적·사회적 저장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85(2014a), 105~134쪽; 우정연,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을 통해 본 개인성과 집단성」, 『한국학』 37-4(2014b), 343~389쪽.

48 우정연, 앞의 논문(2011b), 46쪽의 <표 5> 수정.

49 우정연, 위의 논문(2011b), 48~49쪽.

로서 서로 다른 집단들 간 사회적 교환관계를 나타냈을 수 있다. 유병식석검이나 세장유경식석촉 제작과 비교하여 무문토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원료와 기술을 습득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무문토기는 석기만큼 내구성이 강하지 않고 쉽게 깨지므로 빈번한 교체가 필요하다. 또 집단 구성원들 중 일부에게 접근이나 사용이 제한된 석검이나 석촉과 달리 무문토기는 가구나 취락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석검이나 석촉을 통해 사냥이나 전쟁에 수반되는 무력과 함께 서로 다른 가구나 취락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이 강조되었다면, 무문토기를 통해서도 식량 저장, 가공, 취사, 분배,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력과 함께 서로 다른 가구나 취락 구성원들 사이의 구분이 강조되었을 수 있다. 공동체의 집단적 재생산과 함께 개개 구성원의 생물체적 재생산을 기원하기 위해 석검/석촉뿐만 아니라 무문토기도 무덤에 매납되지만, 무문토기가 지니는 실생활에서의 구분이나 분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공동체의 집단적 재생산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로부터 분리 또는 제거하고자 무문토기를 파쇄하여 그 편들 중 일부만 매납했다는 것이다. 이때 나머지 복원되지 않는 부위의 무문토기편은 피장자와 관련된 생자들 사이에서 보관되거나 순환되었을 수도 있고, 피장자와 관련된 장소에 따로 매납 또는 투기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⁵⁰

송국리문화단계 다른 지역에서의와 달리 송국리유적과 그 주변의 송국리형무덤에서 적색마연호 완형이 아니라 무문토기가 부분적인 편으로 매납된 이유의 실마리는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형성된 정치경제적 연결망의 배타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듯, 송국리유적에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구릉 정상부 대규모 토목공사와, 54지구 대지 평탄면의 유구 배치와 같이 개별 가구들을 포섭하고 통제하였던 공동체에 관한 뚜렷한 물질적 표현이 확인된다.⁵¹ 그에 비해 진주 대평리유적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대형 취락에서는 송국리유적에서

50 J. Chapman, *Fragmentation in Archaeology: People, Places and Broken Objects in the Prehistory of South Eastern Europe*(London: Routledge, 2000).

51 손준호, 「송국리유적의 시기와 성격, 그 학술적 가치」, 『한국청동기학보』 28(2021); 우정연, 「금강중류역 송국리문화단계 사회의 위상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84(2012), 48~49쪽.

와 같이 개별 가구들을 초월하고 통제하는 공동체 조직 대신에, 그러한 상위 조직의 주도 없이 엇비슷한 규모와 성격의 가구군들간 교호(交互)적 지도를 통해 가구와 공동체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그림7〉).⁵² 유적 내에서의 조직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변 유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송국리유적은 송국리형무덤의 밀집, 저장중심유적을 포함한 유적 간 기능분화, 플라스크형 적색마연호의 생산-교환체계(〈그림6〉) 등에서 다중적으로 형성된 배타적인 정치경제적 연결망의 중심을 이룬다.⁵³

무문토기에 비해 적색마연토기는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기술체계, 생산-교환체계를 통해 제작, 사용, 교환되었다.⁵⁴ 그러한 만큼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였던 무문토기보다 가구 내에서의 실질적인 활력과 생명력에 대한 상징



그림6-금강유역 플라스크형 적색마연호 분포도⁵⁵

52 고민정,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생업」,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53 김승욱, 앞의 논문(2001); 김장석, 앞의 논문(2008); 배진성, 앞의 논문(2016); 우정연, 앞의 논문(2011a); 우정연, 앞의 논문(2014a); 우정연, 앞의 논문(2014b); 이정은, 앞의 논문(2023).

54 이정은, 위의 논문(2023), 26쪽.

55 배진성, 앞의 논문(2016), 14쪽의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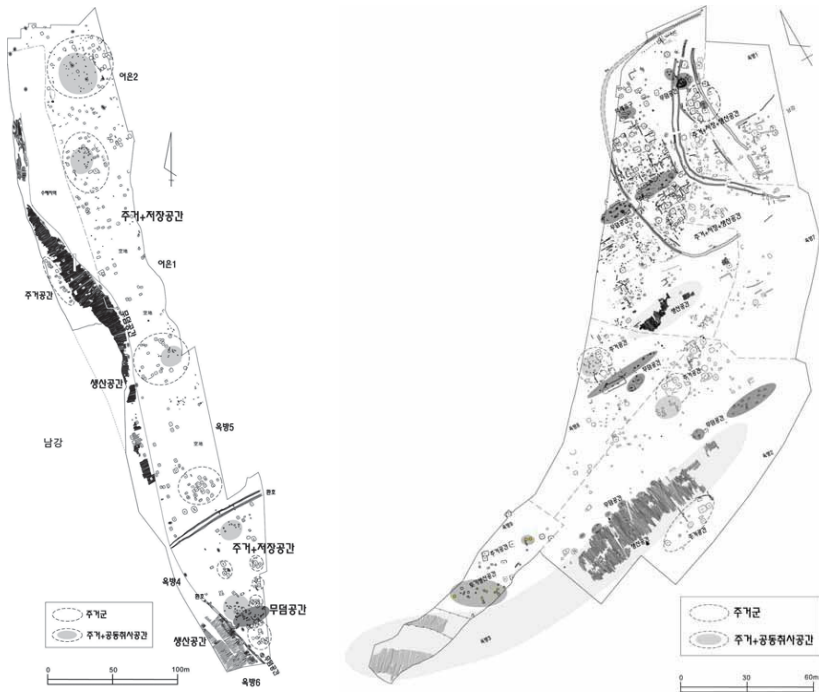


그림7-진주 대평리유적 유구 분포도 (좌: 어은지구, 우: 옥방지구)⁵⁷

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가구 초월적인 공동체와 무력을 상징하는 석검/석촉의 상징적 대응물로 적색마연토기보다 무문토기가 적합하였고, 이처럼 정형화된 차별적인 매장 관행과 코드도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형성된 정치경제적 연결망의 배타성 유지 전략의 일부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⁵⁷

56 고민정, 앞의 논문(2020), 113~114쪽의 <도면 44>와 <도면 45>.

57 송국리문화 핵심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위와 같은 차이는 관계적, 순환적 인간관과 우주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공음공식 행위가 공히 의례적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의미도 지니는 상황에서 그 방식과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뜻이지, 핵심권에서는 정치경제적인 의미만 지니고 그 주변 지역에서는 의례적인 의미만 지닌다는 뜻이 아니다.

IV. 맺음말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송국리문화단계 매장관행에서의 공음공식에 대해서는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호라는 토기를 중심으로 지석묘 묘역에서 발견되는 무문토기편 또는 영남지역 무덤에 매납된 적색마연호라는 틀을 통해 이해되었다. 이로 인해 송국리문화의 핵심권인 부여 송국리유적과 그 주변에서는 적색마연토기가 아니라 무문토기가 무덤 내 매납되고, 또 적색마연호와 달리 완형이 아니라 지석묘 묘역에서와 같이 완형으로 복원되지 않는 편으로 발견된다는 차이가 간과되었다. 아울러 지석묘나 영남지역 무덤을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지석묘 묘역에 투기된 무문토기의 부분성, 적색마연호가 매납된 무덤의 선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계적 존재로서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부분적, 선별적으로 분해되고 재배치될 수 있다는 최근의 고고학적, 인류학적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사람과 사물의 가분성과 침투성을 함께 이해해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공음공식 관행은 단지 산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생명 에너지 순환과 조절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계 중심적이고 순환적인 인간관, 우주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송국리문화 핵심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 구체적인 공음공식 방식과 그에 쓰이는 토기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형성된 배타적인 정치경제적 연결망 유지 전략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단편적, 주변적, 일반론적 담론에 머물렀던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공음공식 관행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논저

- 강민석, 「묘역지석묘의 유물 훼손과 장송의례」, 『한국고고학보』 126, 2023, 7~33쪽.
- 고민정,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생업」,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승옥,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45, 2001, 45~74쪽.
- 김장석,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 2008, 4~39쪽.
- 배진성, 「플라스틱형 적색마연호의 분포와 성격」, 『한국청동기학보』 18, 2016, 4~23쪽.
- 배진성, 「망자의 호, 영혼의 호」, 『한국고고학보』 116, 2020, 67~87쪽.
- 손준호, 「송국리유적의 시기와 성격, 그 학술적 가치」, 『한국청동기학보』 28, 2021, 58~78쪽.
- 우정연, 「금강중하류 송국리형무덤의 거시적 전통과 미시적 전통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79, 2011a, 39~66쪽.
- 우정연, 「금강중류 송국리형무덤의 상징구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호서고고학』 25, 2011b, 30~65쪽.
- 우정연, 「금강중류역 송국리문화단계 사회의 위상구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84, 2012, 30~61쪽.
- 우정연,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저장전락 비교연구: 물리적·사회적 저장전락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85, 2014a, 105~134쪽.
- 우정연,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무덤을 통해 본 개인성과 집단성」, 『한국학』 37-4, 2014b, 343~389쪽.
- 우정연,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인골과 무덤을 통해 본 젠더와 삶의 재생산」, 『한국상고사학보』 125, 2024, 41~70쪽.
- 유병록, 「송국리형구거지 노의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22, 2018, 70~93쪽.
- 이상길, 「지석묘의 장송의례」, 『고문화』 45, 1994, 95~113쪽.
- 이상길,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성주, 「저장제사와 성찬제사: 목곽묘의 토기부장을 통해 본 음식물 봉헌과 그 의미」, 『영남고고학』 70, 2014, 106~141쪽.
- 이영문,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2002.
- 이영문·윤호필(편), 『총설』, 『분묘와 의례』, 서울: 서경문화사, 2017, 9~16쪽.
- 이정은, 「청동기시대 중기 적색마연토기 연구: 충청·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14, 2020.
- 이정은, 「적색마연토기의 생산과 교환: 남강유역과 금강유역의 비교 연구 시론」, 『영남고고학』 95, 2023, 25~42쪽.

- 이정은·황재훈, 「충청·전북지역 적색마연토기의 제작기술적 특징과 성격」, 『호서고고학』 46, 2020, 4~33쪽.
- 크리스 파울러(지), 우정연(역), 『고고학과 인류학을 통해 본 사람다움』, 서울: 서경문화사, 2018.
- Becker, A., *Body, Self and Society: The View from Fiji*,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 Brück, J., *Personifying Pre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Carrasco, D., "Cosmic Jaw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63, 1995, pp. 429~463.
- Chapman, J., *Fragmentation in Archaeology: People, Places and Broken Objects in the Prehistory of South Eastern Europe*, London: Routledge. 2000.
- Dietler, M., "Theorizing the Feast," in Dietler, M. & Hayden, B. (eds.), *Feasts: Archaeological and Ethnographic Perspectives on Food, Politics and Power*,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2001, pp. 65~114.
- Fowler, C., "Fractal Bodies in the Past and Present," in Borić, D. & Robb, J. (eds.), *Past Bodies: Body-Centred Research in Archaeology*, Oxford: Oxbow Books, 2008, pp. 47~57.
- Hastorf, C. A., Steamed or Boiled: Identity and Value in Food Preparation, in Pollock, S., (ed), *Between Feasts and Daily Meals: Towards an Archaeology of Commensal Spaces*, Berlin: Topoi, 2015, pp. 243-276.
- Herdt, G. H., "Semen Transactions in Sambia Culture," in G. H. Herdt(ed.), *Ritualized Homosexuality in Melane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p. 167~210.
- Johnson, A. W. &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 Mortimer, J. R., *Forty Years' Researches in British and Saxon Burial Mounds of East Yorkshire*, London: A. Brown and Sons, 1905.
- Nelson, S. M., Feasting the Ancestors in Early China, in Bray, T. (ed.), *The Archaeology and Politics of Food and Feasting in Early States and Empire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2003, pp. 65~89.
- Scarry, C. M., Hutchinson, D. L., and Arbuckle, B. S. (eds.), *Ancient Foodways: Integrativ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Subsistence and Society*,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22.
- Strathern, M., *Property, Substance and Effect*, London: Athlone, 1999.
- Twiss, K. C., *The Archaeology of F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References

Books and Journal Articles

- Bae, Jinsung, "Distribution and Nature of Flask-type Pottery," *Hanguk Cheongdonggi Hakbo*, Vol. 18, 2016, pp. 4-23.
- Bae, Jinsung, "Jar of the Dead, Jar of the Soul," *Hanguk Kogo-Hakbo*, Vol. 116, 2020, pp. 67-87.
- Fowler, C.,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tudies on Personhood*, Woo, Jungyoun(trans.), Seoul: Seo Kyung Publishing Co.
- Kang, Minseok, "Deliberate Destruction of Artifacts and Funeral Rituals at Dolmens with Surrounding Stone Platforms," *Hanguk Kogo-Hakbo*, Vol. 126, 2023, pp. 7-33.
- Kim, Jangsuk,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Storage Facilities of the Songgukri Period," *Hanguk Kogo-Hakbo*, Vol. 67, 2008, pp. 4-39.
- Kim, Seungog, "A Study of the Songgungni-type Burials in the Kum-gang River Basin," *Hanguk Kogo-Hakbo*, Vol. 45, 2001, pp. 45-74.
- Ko, Minjung, 2020, "The settlement and subsistence of the bronze age in the Nam-river,"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eongnam University.
- Lee, Jeongeun & Hwang, Jaehoon, "Production Techniques of Red Burnished Pottery in the Chungcheong and Jeonbuk Provinces," *Journal of the Hoseo Archaeological Society*, Vol. 46, 2020, pp. 4-33.
- Lee, Jeongeun, "A Study on the Middle Bronze Age Red Burnished Pottery of the Chungcheong and Jeonbuk Provinces," *Hanguk Kogo-Hakbo*, Vol. 114, pp. 63-95.
- Lee, Jeongeu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ed Burnished Pottery: A Comparative Study of the Nam River and Geum River," *Yongnam Archaeological Review*, Vol. 95, 2023, pp. 25-42.
- Lee, Sang-kil, "Burial Rituals of Dolmen," *Komunhwa*, Vol. 45, 1994, pp. 95-113.
- Lee, Sang-kil, "The Archaeological Study on the Rituals of the Bronze Ag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History,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 Lee, Sung-joo, "Food Serving and Storage Ritual in Wooden Chamber Burials," *Yongnam Archaeological Review*, Vol. 70, 2014, pp. 106-141.
- Lee, Youngmoon, "Overview," in Lee, Youngmoon & Yun, Hopil(eds.), *Burials and Rituals*, Seoul: Seo Kyung Publishing Co., pp. 9-16.
- Lee, Youngmoon, *A Study on Korean Dolmen Societies*, Seoul: Hakyoun Munhwasa, 2002.
- Son, Joonho, "Periodization,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Significance of the Songguk-ri Site," *Hanguk Cheongdonggi Hakbo*, Vol. 28, 2021, pp. 58-78.
- Woo, Jungyoun, "A Comparative Study of Storage Strategies in the Korean Early to Middle Bronze Age Hoseo Region: Focusing on Physical and Social Storage Strategies," *Hanguk Sanggosa Hakbo*, Vol. 85, 2014a, pp. 105-134.
- Woo, Jungyoun, "A Study of Prestige and Value Structures of Songgungni-Assemblage Societies in the Midstream of the Gum River Basin," *Hanguk Kogo-Hakbo*, Vol. 84, 2012, pp. 30-61.
- Woo, Jungyoun, "Gender and Regeneration of Life in South Korean Bronze Age Bodies and Burials," *Hanguk Sanggosa Hakbo*, Vol. 125, 2024, pp. 41-70.

Woo, Jungyoun,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Represented in Megalithic and Non-megalithic Burials in the Korean Early to Middle Bronze Age Hoseo Reg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Vol. 37, No. 4, 2014b, pp. 343-389.

Woo, Jungyoun, "Macro and Micro Traditions of Songgungni-type Burials in the Mid-Lower Stream of the Gum River Basin," *Hanguk Kogo-Hakbo*, Vol. 79, 2011a, pp. 39-66.

Woo, Jungyoun, "Symbolic Meanings of Songgungni-type Burials in the Midstream of the Gum River Basin," *Journal of the Hoseo Archaeological Society*, Vol. 25, 2011b, pp. 30-65.

Yu, Byoungrok, "Study of Hearth of Songguk-ri Type Dwelling," *Hanguk Cheongdonggi Hakbo*, Vol. 22, 2018, pp. 70-93.

Table

Table 1. Types of Body Fragmentation or Combination
 Table 2. Artefacts from Songgukri-type Burials in the Midstream of the Geum River Basin

Figure

Figure 1. Artefact Fragmentation and Deposition within or without Burials
 Figure 2. Burials and Landscape
 Figure 3. Locations of Red-burnished Jars in Burials
 Figure 4. Body-Object Complexes
 Figure 5. Relocation of Bodies
 Figure 6. Distribution of Flask-shaped Red-burnished Jars in the Geum River Basin
 Figure 7. Distribution of Buildings in the Daepyeongri Site, Jinju